연세대 소장 각필구결본 『묘법연화경』의 부정문*

이전경**

要 約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각필법화경은 조선 초기 이전의 자료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토된 점토의 양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나타내는 단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유가사지론과 일치된다는 점이 알려졌을 뿐 점의 위치 변이나 구결토의 용법에 대해 정밀히 연구된 적이 없다. 점도에 대한 연구의 전단계로서 이 논문에서는 법화경에 나타난 부정구문을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는 '無, 非, 靡, 莫, 未, 不, 勿'의 부정문이 나타난다. '靡不'등 이중부정문과 능력부정구문이 다수 나타나 부정문 논의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에 나타난 부정문의 양상은 자토 및 점토구결에 사용된 양상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나 세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석독구결은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으로 나뉘고 계통에 따라 일관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몇몇 용례에서 두 계통의 경향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 점토구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동사의 새김표지라고 할 만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이 자료의 시기, 표기법의 정밀도 등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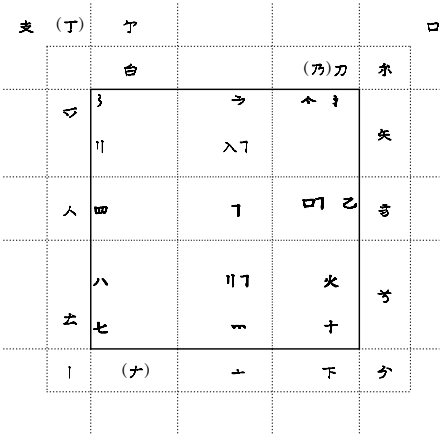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사업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0-361-A00018)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

*핵심어: 법화경, 점토구결(點吐口訣), 점토(點吐), 부정법

1. 머리말

연대에 소장된 각필구결본『묘법연화경(권 1)』은 발견된 지 오래되었으나 그 연구가 미비하였다. 사진자료가 없어 이점본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상의 어려움이 연구의 진척을 더디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자료의 점토가 각필구결본『유가사지론』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요인이다. 본 자료의 내용인 서품과 방편품은 설법의 상황을 서술하고 다시 게송으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 많아 같은 구문이 반복되는 곳이 다수 있다. 그러나 본 자료는 중복되는 곳의 점토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고 있어야 할 곳에 점토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점토가 많이 몰려있는 등 현토의 상황에 대해 숙고해야할 점이 많다. 아래 〈표1〉에 이 자료의 단점도를 소개한다. 괄호로 둘러싼 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을 표시한 것이다. 해당 위치에 나타나지만 해독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표 1〉 법화경 권1 단점도

이 자료의 점토는 이전경(2006)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가사지론 계통이다. 단점, 선점의 위치 및 해독은 대체로 유가사지론 계통이지만 해독된 구결문에 나타난 양상은 자토화엄경과 일치되는 곳도

보인다. 2장에서 살피겠지만 이 자료의 부정문에서 자토유가사지론 및 자토 화엄경의 구문과 일치되는 점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자료가 초조대장경의 각필구결자료들보다 후대의 언어 사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을 가리킨다. 각각의 경전이 다른 표기경향을 보일 때 그 두 가지 경향을 모두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이것은 두 가지 경향을 모두 경험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경향이 모두 나타난다면 후대의 자료로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 있는 추정일 것이다. 다만 그 하한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부분적인 검증이 모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분적 연구의 첫 단계로서 이 글에서는 이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양상을 살피고 이것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고려시대의 부정법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갖는지 밝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본 각필 법화경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소개하여 이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점토구결 연구의 새로운 재료를 제공하려 한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의 구결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2003・2008・2010)에 정리되어 있다. 편의상 이를 아래의 〈표2〉로 재편하여 인용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의 자토 및 점토구결에서 부정의 형식은 크게 동사부정과 명사부정으로 나뉘고 동사부정은 길이에 따라 단형과 장형으로, 의미에 따라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문현수(2011)에서는 부정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단순부정과 의지부정, 부사의 선택에 따라 능력부정과 타의부정, 불급부정으로 정밀하게 나누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부정이라는 의미범주에 근거하여 문맥에 따라 나눈 것으로 구체적인 형식의 차이가 우선시되는 점토의 판독과 해독에 대입하기에는 불편하다. 이러한 부정문의 의미 분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본 논문의 대상 자료를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한 분류가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이용(2010)에서 재인용

명사문 부정형식	동사문 부정형식		
	단형	장형	
		단순부정	능력부정
명사(구)+不矣(非矣/未矣), [非ㅣ矣] 형용사+不矣(非矣/未矣)	不多+동사/형용사	동사+-尸+不多(非多)	동사+-尸+不ㅅ(未ㅅ,未ㅣ) [동사+-尸+不(丿)能ㅣ矣]
*[ ]는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만 출현			

구체적으로 석독구결의 부정의 형식은 화엄경 계통인 유가사지론 계통인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자토인가 점토인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현재로선 자료 및 표기법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국어 부정법은 대체로 같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각필구결 법화경에는 비교적 다양한 부정표현이 사용되어 고려시대의 부정구문에 대한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던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법화경에 나타난 부정문

2.1. 명사문 부정

명사문 부정에서는 일반점토구결과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용례가 많고 해독이 미비한 부분도 많으므로 짧게 인용한다. 이 자료에는 부정어에 '矣'가 현토된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점토자료에서는 명사문의 부정어 不 ,非 등에 '矣'가 현토된 경우가 나타나나 생략된 경우도 많으며 특히 유가사지론에서 그러하다.

2.1.1. 無 부정문



그림 1



그림 2



그림 3

(1)A: 道場[44(·)]所得[33(·),42(·)]法[34(·)]無能[22~32(·),25(·)]發問[22(··),35(·)[1],15~24(/),54(/)]者我[23(·)]意[14(·)]難[24(·)]可測[42(\ ),33(·),33~43(·)]亦無能[22~32(·),25(·)]問[22(··),35(·),24(\ )≠14(\ ),41(·),51~52(.·),55(·)]者無問[24(··)≠(ㅣ·)≠(.·),34(/),12(·)]{23~24(·)}而[33(·)]自[43(·)]說[22(·)] 〈법화1, 17:03-04〉

=〉 道場十 得白ㅁㄱ 所乜 法乙 能ㅂ矢 發問(ㅅ)白ㅁx多ㅅ个{者} 無x 分 我ㅋ 意刀 難ㅔ 測ノ十七(ㅅ)ㄱ ㅂㄱ 亦 能ㅂ矢 問白ㅁ多ノ个{者} 無 土x ㅣㅅ分 問x个[2] 無ㅅㄱ 乙 而ㄱ 自ㅱ 說ㄴ(道場애 得ᄒᆞ샨 法을 能히

---

1) 유가사지론이라면 35의 단점으로 파악될 자리이다. 35로 파악할 경우 '22'의 쌍점과 '35'의 단점이 '白ㅁ多'로 의도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도의 연결어미 '-고자'와 나열의 연결어미 '-져'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자료로 생각된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34와 35의 위치가 정확히 갈리지 않는데 이 단점을 '34'로 판정할 경우 '發問乙(ㅅ)白ㅁx ㅅ个{者} 無x 分' 또는 '發問(ㅅ)白ㅁx乙ㅅ个{者} 無x分'로 판독하고 '22(··)'을 '白ㅁ' 및 명사 형태를 포함한 어떤 것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22 위치의 단점이 'ㄴ'임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해독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2) 유가사지론 점도에 따르면 수평 쌍점의 경우 '白ㅁ'를 포함하고. 24위치의

묻ᄌᆞ옴 내리 업스며 내 ᄠᅳ디 혜아료미 어려우니라 ᄒᆞ샤도 ᄯᅩ 能히 묻ᄌᆞ오리 업거늘 묻ᄌᆞ오리 업시 ᄌᆞ걔 니ᄅᆞ샤 〈法華1:162b_2-3〉)

(1)은 '無' 부정문의 일부 예들이다(〈그림1-3〉 참조). '無量', '無邊'과 같은 예들은 매우 많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현토된 점토가 없거나 '33(/)'이 현토되었다. '能'이 일반부사로 쓰일 경우 55(·)이 현토되지만 부정문에서는 '(ㅣ)矣'가 현토되는데 특이한 것은 자토구결에서 'ㅣ矣'는 화엄경의 不能구문에만 현토되는 방식이다. '能' 의 경우만 놓고 보면 자토석독구결의 화엄경과 유가사지론 두 경향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2.1.2. 기타 명사문 부정

(2)[3] 가. 此[33(·)]{13(··)}非小{33(/),11~21(-),42(·)}緣 [51(·)] =〉 此ㄱ 小ᄉᆞᄀᆞᄇᆞᄂᆞ 緣 非ㅣ 〈법화1, 08:07〉

나.此非佛弟子[=55(·)]非阿羅漢[55(·)]非辟支佛[45(-)≠35(-),51(-)] =〉 此 佛弟子 非分 阿羅漢 非分 辟支佛X 非x ㅣ 〈법화1, 21:09-10〉

다. 莫能[22~32(·),25(·)]知少[12≠22(··),15~24(/), 55(-),13(\ ),경계선,지시선]分{12(·),14(·),경계선}{24(·)} =〉 能ㅣ矣 少分ᄒᆞᄀᆞᆷ 知白ᄀᆞᄉᆞᆫᄉᆞᆫ 莫x分ᄂᆞᄑᆞᄆᆞᆷ 〈법화1, 15:19〉

(2가, 나)는 '非' 부정문으로 이 자료에서 형용사의 부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2가)는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小'에 현토된 점토는 여타 각필자료의 일반적 점토와 다르다. 우선 33이 무척 긴데 이것은 이 자료의 일반적 경향이다. '42(·)'도 조금 크고 그 위치도 52로 볼 가능성도 있는 위치이다. 이 자료에서는 긴 세로획이 있는 글자의 경우 대체로 51과 55가 세로획 삐침의 좌우에 찍히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

사선이나 역사선이 'ᄉᆞᆫ'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白ᄀᆞᄉᆞᆫ'일 가능성이 있다.

3) 편의상 간단히 필요 부분만 인용한다. 부록에 좀 더 긴 인용문을 실었다.



그림 4(2-가)



그림 5(2-다)

여 42로 처리하였다. 또한 '11~21(-)'은 주름에 접혀 있어 불명확하지만 수평선 위에 단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가능한 해독의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4]. '緣'에는 52 위치의 단점만 보이는데 우선은 'ㅣ'로 해독하였다[5].

(2나)는 특이한 것이 辟支佛'에 현토된 '[45(-)#35(-)]'이다. 이 위치의 수평선은 'ㄱ乙'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非xㅣxㄱ乙'처럼 해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자료의 기준으로 볼 때 선이 짧아서 단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치도 45인 점등을 고려하면 '辟支佛'의 말음과 보격조사의 결합인 'ᄉᆞ'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

4) '[11(ㄴ)]', '[12(·),경계선]'이 가능할 것이다. 전자라면 'ᄂᆞ' 또는 'ᄉᆞ'를 포함하는 점토를 상정할 수 있겠고 후자라면 'ㅏ'로서 '小ㅅㅣㅏᄂᆞ'의 해독이 가능하다.

5) 이 자료의 51과 52 위치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비하다. 정확히 51과 52를 구분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는 54와 55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사진에서는 52~53 사이에 단점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먹이 튄 것으로 보인다.

였다.

(2다)는 '莫' 부정문으로 (1)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12(••)≠22 (••)'과 '15~24(/)'가 공통되며 '-白ㄱ个 無/莫-'으로 해독된다. 모두 부처의 지혜를 알 사람이 없다는 구문으로 객체존대가 사용되어 부처를 존대하고 있다.



그림 6(3-가)



그림 7(3-나)



그림 8(3-다)

(3) 가. 世雄[33(•)]不可[43(:)]量[42(\ ),33(/),43(•),22(•),지시선]

=〉 世雄ㄱ 量ノ个{可}七ソㄱ 不ㄱ二ㄴ土ㄱ入ㅛ 〈법화1, 15:02〉

나. 是法[33(•)]不可示[42(\ ),33(/),22(•),52≠53(\ ),54(:)]

=〉 是法ㄱ 示ノ个{可}七ソㄱ 不ㄱXX 〈법화1, 15:08〉

다. 其數不可量[42(\ ),33(/),22(•),53(•)]

=〉 其數 量ノ个{可}七ソㄱ 不ㄱ(ㄱ)ㅗ 〈법화1, 24:06〉

(3)은 不可구문으로서 기존 자료에서는 '동사+ノ个{可}七ソㄱ 不矢-'의 형태로 나타난다.[6] 이 자료에서는 '矢'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7] 특징

6) 이 자료에는 총 5개의 不可구문이 나타난다. 위에 소개한 것 외에 다음의 용례가 더 있으나 점의 위치가 불명확하고 판독이 어려워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아래에 판독안만 소개한다.

적으로 '22(·)'이 나타난다(〈그림6~8〉 참조). (3다)의 경우 '53(·)'이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 '22(·)'를 연결어미 ''로 상정하고 싶으나 육안으로 확인한 바로는 단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3가)의 경우 ''가 포함된 점토와 어떻게 공기할 것인가는 추후의 숙제로 남겨둔다. (3나)의 경우는 따로 연결어미가 있으므로 '22(·)'은 선어말어미나 말음첨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8)]

2.2. 동사문 부정

2.2.1. 단순부정

(4) 가. 未常[22~32(··)]睡眠[15~25(-),22(·)]

=〉 常X 睡眠()尸 未()〈법화1, 06:19〉

나. 身[31(·)]心[33(·)]不動[15~25(-),25(·)#25(·.),22~32(·)]

=〉 身人 心 動尸 不矣()〈법화1, 10:13〉

(4)는 동사문 부정의 예로 '未'와 '不'의 단순부정 구문이다(〈그림9,10〉 참조). 동사에 현토되는 동명사어미 '尸'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不-, 未-'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4나)에서 '矣' 또는 'x矣'로 추정되는 점토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부정사 앞뒤의 형태에 따라 '-尸 不-'은 동사문 부정으로 '- 不矣-'는 명사문 부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4나)는 동사문 부정에 포함시켜야 할지 주저하게 되는 예이다. 다만 능력부정의 예로 거론되는 '未-'와의 형태적

---

(1)不可以言[34(·),22(·)]{12(·),13#23(·)}宣[42(丶),33~43(/),33(丨),55(·),22(·),34(:)]

(2) 不可捨[42(丶),33~34(/),25#34(·),15#24(·),미상(21#22,/)]

7) 각주 5의 (2)에는 '25(·)'으로 판독할 만한 예가 나타난다.

8) 각주 5의 (1)에는 '乙'로 판독할 만한 '22(·),34(:)'의 예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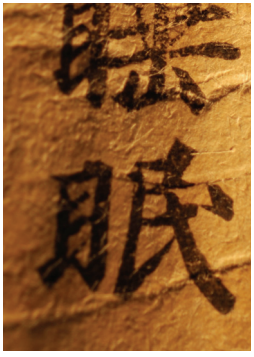


그림 9(4-가)



그림 10(4-나)

관련성이 주목된다. 현재로선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판독을 달리할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겠지만 동사부정과 명사부정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현재 구결문에 나타난 부정문은 동사문의 단형부정문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모두 명사문의 형태이다. 부정사의 형태가 모두 의존명사를 포함한 구성이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장형 부정문은 명사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尸 未ㅣ/不矢-'의 예를 고려해 볼 때, 동사문 부정과 명사문 부정의 구별에서 부정소의 후부 요소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1(5-가)

다음은 모두 '勿' 부정문으로서 명령문의 형식이다. (5가, 다)는 부처가 청중에게, (5나)는 사리불이 부처에게 청원하는 장면이다. 따라서 (5나)에는 대우법의 요소가 기대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세 개의 예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22(·), 미상(22,/)'의 점토를 공유하고 있어 이것이 명령법과 관련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5) 가. 汝[45(·)]等[32(/)]勿憂[35(·)]怖[35(·), 15~25(-),15~24(/),22(·), 미상(22,/)]

=〉 汝 等 勿 憂 怖(ㄴ)尸 勿ノ令ㄱ 〈법화1, 13:-05〉

나. 願[23~33(·)]勿慮[15~25(-),15~24(/),22(·),미상(22,/)]

=〉 願入ㄱ 慮尸 勿ノ令ㄱ 〈법화1, 17:24〉

다. 汝等[32(/)]勿有{34(·)#35(·)}疑[15~25(-),15~24(/), 22(·)#12(·),미상(22,/),경계선]

=〉 汝 等 勿 有疑(ㄴ)尸 勿ノ令ㄱ 〈법화1, 28:10〉

2.2.2. 능력부정

능력부정의 예들은 모두 부정소 '不'에 32~42(·)이 현토되어 있다. 따라서 일견하기에는 단형부정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 구절 말에도 '32~42(·)'이 나타나 현재로선 단순한 이중표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9].

(6가, 나)는 같은 구문인데 아주 다른 점토가 달려 있어 주의를 요한다(〈그림 12,13〉 참조). (6가)는 '通利'를 동사로 파악하고 (6나)는 형용사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표기방식은 아마도 엄정한 구결 현토방식에 익숙치 않은 현토자의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당시의 언어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9) 자토화엄경의 능력부정 '不(ノ)'와 동일한 위치에 점이 찍혀 있으므로 이와의 관련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림 12(6-가)



그림 13(6-나)

(6) 가. 而[33(·)]{33(·),43(·)}不[32~42(·)]通利15~25(-),32~42(·),22(·),22~32(.·)#31~32(.·)]

=〉 通利尸 不ㅅ(ㄴ)ㅋxㄱㅐ〈법화1, 11:04-06〉

나. 廢忘[15(·)]不[32~42(·)]通利[34(-),43(ㅗ),51(.·),경계선]

=〉 廢忘(ㄴㅋ)ホ 通利xㄱㄹ 不ㅅxㅣxm〈법화1, 13:15〉

다. 自[43(·)]亦未[32~42(·)]了[32~42(·),55(·.)]{31~32(·)}

=〉 自m 亦 了 未ㅅx分 〈법화1, 16:17〉

라. 亦復不[32~42(·)]能知[12(·),15~25(-),14~15(/),51(:)

#51(··)#(ㅠ)] => 不ㅅ 能 知白(勹)尸 Xx分 <법화1, 15:24>

(6다, 라)는 장형부정과 단형부정 모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예들이다. (6다)는 능력부정에 쓰인 '未' 구문의 예로 '32~42(·)'가 현토되어 있다. 동사인 '了'의 이 위치에도 단점이 있어 위에서는 이중표기로 보았다. 다만 '32~42(·)'의 위쪽에 작은 점이 있어 '31~32(:)'를 인정한다면 (6다)는 '自m 亦 未ㅅ 了 x分X'로 파악될 수 있다. (6라)에는 '不'에만 '32~42(·)'가 있어 단형부정으로 처리하였으나 동명사어미 뒤에 연결될



그림 14(6-다)



그림 15(6-라)



그림 16

점토 '14~15(/)'의 해독이 간단하지 않다. 또한 '不'에 '32~42(·)'이 현토된 경우 구절 말에 '32~42(·)'이 현토되지 않는 경우는 위의 예뿐이다.

여기서 '不'에 찍힌 '32~42(·)'는 일반적인 단점과 다르다. 중복표기 된 점토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자료에는 '有'에 '22~23(·)'이 찍힌 용례가 나온다. 구절 말이 아닌 경우 동사에 현토되지 않는 것이 점토구결의 특성인데 이 자료에는 '不'과 '有' 두 용례가 나타난다. 자토에 보이는 말음이나 두음의 표기처럼 동사를 어떻게 해독해야 할지 표시하는 새김표지이다.[10]

10) 이전경(2012)에 '爲'자에 현토된 새김표지 '弋,ㅡ,戈,乍' 등이 소개된 바 있다.

3. 맺음말

이 글에서 연세대 소장의 각필 법화경에 나타난 점토 중 극히 일부를 다루었지만 기존의 논의와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났다.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연구자와 자료의 한계 때문임은 의심할 바 없지만 이 자료에 나타난 표기적 특징은 구결이라는 표기법의 개성적이고 자율적인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 자료에 나타난 부정문의 유형은 '靡不' 구문 외에는 모두 언급하였으나[11] 모든 예문을 소개하지 못하였다. 이 자료에는 많은 미상의 부호들과 판독 자체가 힘든 부분이 있어 되도록 분명한 예를 고른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소개한 예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은 앞에서 보인 바와 같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자료에는 명사문 부정(명사구 +非/無/莫-)과 동사문 부정(동사+尸+不/米-) 형식이 모두 나타나고 동사문 부정에서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이 나타난다.

둘째 구체적인 형태에서 일반적인 석독구결의 구분에서 벗어나는 용례들이 나타난다. 명사문 부정의 부정어에 '矢/刂'가 현토되지 않고 동사문 부정어에 '矢'가 현토되는 예가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부정문 분류에서 기계적으로 '-尸 不矢-'과 '-亻 不矢-'를 동사문 부정과 명사문 부정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재고해야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능력부정의 예로 '不/未八'이 나타나는데 부정어에 '八'에 해당하

11) 이 자료에 나타나는 '靡不' 구문은 다음과 같다. 미상의 부호 및 두 용례의 판독이 어렵고 사진이 마련되지 않아 각주로 대신한다.
〈법화1, 03:21〉 靡不周{13(·)}遍[11~21(/),34#45(·.),14~15(\ )]
〈법화1, 10:04〉 靡不周遍[+15~25(-),11~21(./),53(:),34(·.),15~25(··),33(:),14(\ ),54~55(··),미상(11,/)]

는 단점이 현토되고 구절 말에 동일한 단점이 현토되어 중복표기의 방식을 보인다. 이것은 구결문에서 간혹 나타나는 동사 새김표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법화경 경전의 현토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한 중복표기일 가능성, 자토화엄경의 능력부정 '不(ノ)'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參考文獻

남풍현(1976),「국어부정법의 발달」,『문법연구』3, pp.55-81.
남풍현(1999),『『유가사지론』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문현수(2011),「자토석독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기능」,『口訣硏究』32, 口訣學會, pp.155-187.
박진호(2003),「주본화엄경 권제 36 점토구결의 해독-자토구결과의 대응을 중심으로-」,『口訣硏究』11, 口訣學會, pp.211-247.
이 용(2003),「석독구결에 나타난 부정사의 기능에 대하여」,『구결연구』, 11 구결학회, pp.249-273.
이 용(2008),「향가 해독의 한계와 극복 방안-부정법 문제를 중심으로」,『국어학』51, 국어학회, pp.385-420.
이 용(2010),「점토석독구결자료의 부정법」『口訣硏究』24, pp.97-131.
이전경(2006)「연세대 소장 각필묘법연화경의 조사」,『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2』, 태학사.
이전경(2012)「'爲'자에 현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구결연구』28, 구결학회, pp.166-189.
이지영(2008),『한국어 용언 부정문의 역사적 변화』, 태학사.
장경준(2005),「『유가사지론』점토석독구결의 해독방법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은주(2001),「고려시대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口訣硏究』7, 口訣學會, pp.135-165.

〈부록: 인용문 목록〉

〈법화1, 06:19-20〉 又見佛子[22~32(·)]未常[22~32(··)]睡眠[15~25(-),22(·)]經行林中[44(·),15(·)#(.·)#(/)]勤[42(·)]求佛[34(·),55(·)#54(·)]道[53(·),34(/·),24~34(:),합부지시선]

=〉 又 佛子ㅐ 常X 睡眠(ㅅ)尸 未(ㅅ)ㅈ 林中十 經行(ㅅ)口 勤七佛道ㅗX 求X乙 見ㅎ

〈법화1, 08:06-07〉 示諸佛土[22~32(·)#31~32(·)]衆寶[43(·)]{12(·)}嚴淨[22~32(·),45(﹨),55(·.)]及見諸佛[42(·),34(·)?,12(·),21(·.),54(·),25(/·),33(/)]此[33(·)]{13(··)}非小[33(/),11~21(-),42(·)]緣[51(·)]

=〉諸 佛土ㅐ 衆寶ㅻ 嚴淨ㅐㅅ尸入乙 示xㅎ 及 諸佛七乙 見白X下x矢?ㅅㄱ 此ㄱ 小ㅅㄱㅌ七 緣 非ㅣ

〈법화1, 10:11-13〉六十小劫[34(··)]{53(·)?,55(.·)?}不起于座[44(·),15~25(-),33~34(·),34(·)]時[22~32(·)]會[42(·)]聽者[14(·)#15(·)]亦坐一處[22(·),44(·),13(﹨)]六十小劫[22(·)#22~32(·),44(·)#34(·),53(-)]身[31(·)]心[33(·)]不動[15~25(-),25(·)#25(·.),22(·)]聽佛[42(·)]所說[12(·),33(··),42(·),34(·),15(·)]

=〉 六十小劫x乙 {于}座十 起尸 不(ㅎㅅ)口ㄱ乙 時ㅐ 會七 聽者刀亦一處ㅈ十 坐ㅅㄱㅁ 六十小劫ㅈ十xㅗ 身人 心ㄱ 動尸 不矢(ㅅ)ㅈ 佛七說白ㅋㄱ 所七乙 聽口

〈법화1, 11:05-06〉 貪著{35(·.)}利養[34(·),14~25(﹨),+13(/)]雖復[24(/)]讀{35(·)}誦{35(·)}衆經[22(/),11~21(-),35(·.),34(·.)]而[33(·)]不[32~42(·)]通利15~25(-),32~42(·),22(·),22~32(.·)#31~32(.·)]多所忘失[+15~25(-),15(﹨)#25(﹨),43(-),경계선]故[41(·)]

=〉 利養乙ノ仝 貪著ノ尸ㅁ 雖 復ㅅ仝 衆經Xノㅌ 讀誦xㅎx乙 而ㄱ 通利尸 不ㅅ(ㅅ)ㅈxㄱㅐ 忘失ノ尸 所X 多ナㄱ入ㅻ 故ㅗ

〈법화1, 13:02-03〉 聖主[14(:)#(·),15(/)]法[22(·),42(·)]之王[22~32(·)]安慰{51(·)}無量衆[24(﹨),14(:),15(/),34(··)]我[23(·)]若滅度[42(·),합부]{24(··),31(·),41(·),11(.·),53(·)}時[53(·),44(·)]{14(·),41(·)}汝[45(·)]等[32(/)]勿憂[35(·)]怖[35(·),15~25(-),15~24(/),22(·),미상(22,/)]

=〉聖主X亽 法ㅋ七{之} 王ㅣ 無量衆乙 安慰ノ仝XX 我ㅋ 若滅度七 時ㅗ十 汝ㅎ 等ソ丁ㅣ 憂ㅎ 怖ㅎ(ソ)尸 勿ノ仝ㅋ

〈법화1, 13:15-16〉求名利[34(·),13(丶)]{15~25(-)}無厭[15~25(-),13(丶)]{45(.·)} 多[45(·)]遊族姓家[44(·),35(/)]{51(·)} 棄捨{33(丶)#역독선?}所習誦[33(丶),34(·),43(丶)]廢忘[15(·)]不[32~42(·)]通利[34(-),43(ㄴ),51(.·),경계선]

=〉 名利乙 求ノ丁厶 厭尸 無ノ丁厶 多ㅎ 族姓家十 遊x ㅎ 習誦ノ丁 所乙 棄捨ノ丁入ㅠ 廢忘(ソㅋ)ホ 通利x丁乙 不ハx丨xㅠ

〈법화1, 15:02-04〉 世雄[33(·)]不可[43(:)]量[42(丶),33(/),22(·),지시선]{43(·)}?諸天[53(·)]及世人[53(·)]一切衆生[42(·)]類[53(·),21~32(·丶)]{34(·),52(·)}無能[54(·)]知佛[15(/)#14(/),42(·),34(··)]者{33(·),55(-),14(·)}佛力[53(·)]無所畏[53(·)] 解脫[53(·)]諸三昧[53(·)] 及佛諸餘法[53(·),+34(丶)#45(丶),경계선] 無能[22~32(·),25(·)]測量[15~24(/),42(·),51(·)]者

=〉世雄丁 量ノ古{可}七ソ丁 不ㅋ二丁入ㅠ 諸天ㅗ 及 世人ㅗ 一切衆生七 類ㅗX 能ㅎ 佛 知ソ仝 無七x乙 佛力ㅗ 無所畏ㅗ 解脫ㅗ 諸三昧ㅗ 及 佛諸餘法ㅗノ尸乙 能ㅋ矢 測量ソ仝{者} 無七丨

〈법화1, 15:08-09〉 是法[33(·)]不可示[42(丶),33(/),22(·),52#53(丶),54(:)]言辭相寂滅[33(·.)#33~44(·.)] 諸餘衆生類[22~32(·)#22(·)] 無有能[25(·)]得[15(·)]解[15~24(/),25(·)#24(·),41(丶),21(·),41~51(-)]

=〉是法丁 示ノ古{可}七ソ丁 不ㅋXX 言辭相 寂滅x丁 諸餘ㅋ 衆生類ㅋ 能矢 得ホ 解ソ仝 無有矢X冖ナ古七(丨)

〈법화1, 15:17-19〉 辟支佛[33(·)]利[42(·)]{34(/)}智[22~32(·)#22(·)]{34~44(·)}無漏[22(·)]最後身[34(·),합부]亦滿十方界[44(·),13(丶)]其數[22~32(·)#22(·)]如竹林[11(·),33(/)]斯等[32~33(/)]共[42(·)]一心[43(·),33(·)]於億無量劫[44(·)]欲思佛實智[31(·)?,34(·.)]莫能[22~32(·),25(·)]知少[12#22(··),15~24(/),55(-),13(丶),경계선,지시선]分[12(·),14(·),24(·)]

=〉辟支佛丁 利七 智ㅋ 無漏(ソ)ㅋ 最後身乙 亦 十方界十 滿ノ丁厶 其數ㅋ 竹林 如支ソ丁 斯等ソ丁ㅣ 共七 一心ㅠ丁 {於}億無量劫十 佛實智乙 {欲}思人x乙 能ㅋ矢 少分ナ刀 知白冖ノ仝 莫x夕ノ尸厶

〈법화1, 15:23-24〉 不退諸菩薩[22~32(·),14~15(/)]其數如恒沙[11(·),11~21(/)]一心[11(·)]共[42(·)]思求[15~24(/),33~34(·)]亦復不[32~42(·)]能知[12(·),15~25(-),14~15(/),51(:)≠51(··)≠(ㅠ)]

=〉 不退諸菩薩ㅣXㅣ 其數 恒沙 如ᄉx ㅌ 一心? 共ㄴ 思求ノ个(ㄴ)ㅁㄱ 亦復 能 知白(ㅋ)尸 不ㅅXx分

〈법화1, 16:17〉 尒時[23(·),44(·)]舍利弗[=22~32(·)≠22(·)]知四衆[24(·)]心疑[23(·),44(·.),45(/),55(·)]自[43(·)]亦未[32~42(·)]了[32~42(·),55(·.)]{31~32(·)}

=〉尒時ㅋ十 舍利弗ㅣ 四衆ㅈ 心疑ㅋx十ㄴ尸入乙 知分 自ㅆ 亦 了 未ㅅx分

〈법화1, 17:24〉 法王[22~32(·),51(··)]無上尊[54(·.)≠53(·.)]唯說[12(·),34(:)≠35(:)]願[23~33(·)]勿慮[15~25(-),15~24(/),22(·),미상(22,/)]

=〉法王ㅣxㅣ 無上尊x下 唯 說白x乙 願入ㄱ 慮尸 勿ノ个ㅈ

〈법화1, 21:07-10〉 舍利弗[22(·)]若我弟子[22~32(·)]自[43(·)]謂[15(/),15~25(-)]阿羅漢[11~22(＼)]辟支佛[11~22(＼),15~25(-),25(＼),33(·)]{42(:)}者不[32~42(·)]聞[32~42(·),35(·)≠34(·)]不[32~42(·)]知[32~42(·),35(·)≠34(·)]諸佛如來[15(/).15~25(-)]但敎化菩薩[22~32(:),34(·.),33~44(·),42(·)]事[=34(·),43(·),31(ㅜ),53(·)]此非佛弟子[=55(·)]非阿羅漢[55(·)]非辟支佛[45(-)≠35(-),51(-)]

=〉舍利弗ㅈ若 我 弟子ㅣ 自ㅆ 謂X尸 阿羅漢X 辟支佛X尸ノㄱ矢ㄱ {者} 聞(ㄴ尸) 不ㅅ(ㄴ)ㅋ 知ㅅ(ㄴ)ㅋ 諸佛如來X尸 但 菩薩xㅣ 敎化x乙 火七 事乙ㅆX ㅗ 此 佛弟子 非分 阿羅漢 非分 辟支佛X 非xㅣ

〈법화1, 24:05-06〉 過去[42(·)]無數劫[44(·)]無量滅度佛[33(·)]百千萬億種[54(··)]其數不可量[42(＼),33(/),22(·),53(·)]

=〉過去七 無數劫十 無量 滅度佛ㄱ 百千萬億種x下 其數 量ノ个{可}七ㄴㄱ 不ㅈ(ㄱ)ㅗ

〈법화1, 28:10-13〉 汝等[32(/)]勿有{34(·)≠35(·)}疑[15~25(-),15~24(/),22(·)≠12(·),미상(22,/),경계선]我[33(·)]爲諸法[22(·),42(·)]王[41~42(＼),31(·),45(/),43(·)]普[22(··)≠22(·)&22~32(·)]告諸大衆[34

(·),52(··)]

=〉 汝 等ㄴㄱㅐ 有疑(ㄴ)尸 勿ノ仝彡 我ㄱ 諸法彡七 王ㅎ七[爲]人ㄴ 尸入乙ㅠ 普X 諸大衆乙 告ナㄱㅐㅣ

주 소: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위당관 303
E-mail: ljk0201@gmail.com
접수일자: 2013. 01. 10.
심사일자: 2013. 01. 13.
게재결정: 2013. 02. 07.

The negative sentence in code Kugyol of *Myobeop yeonhwagyeong* (妙法蓮華經: Lotus Sutra)

Lee, Jeon-kyung

The Code Kugyol of *Myobeop yeonhwagyeong* (妙法蓮華經:Lotus Sutra) housed in the Yonsei main library, is estimated to be written Koryo period. It is known to agreement with the code Kugyol of Yuqieshidilun(瑜伽師地論) but never has been researched about location change of Punctuation Marks and the usage of Kugyol-to.

This paper examines the negative sentence structure on *Myobeop yeonhwagyeong* with photo materials. "無, 非, 靡, 莫, 未, 不, 勿" indicates that the sentence is the negative sentence. Especially, a double negative and ability negative such as '靡不' are appeared a lot so that these could be add on discussion of negative sentence. Negative sentence in this text divided into two groups, noun-negative sentence and verb-negative sentence. An appearance of negative sentence on this material generally matched to an appearance of Seokdok Kugyol, but is different in detail.

Generally, Seokdok Kugyol is classified by Huayanjing(華嚴經) Type and Yuqieshidilun(瑜伽師地論) Type and both of them show consistent appearance according to the type. however, this research shows that both types could be seen in some examples. Also, Saegim-pyoji(marks indicate semantic readings) of verb which is rarely appeared in Code Kugyol, is shown in this text. This special tendency proposes the need of being researched in various ways such as the period of times, accuracy of orthography of this materials.

Key words: *Myobeop yeonhwagyeong* (妙法蓮華經:Lotus Sutra), Code Kugyol, Jeomto(點吐), negative sentence